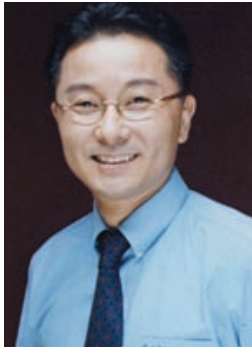


사이버大서 미래를 클릭하라

글 / 황인태 서울디지털대학교 부총장



21세기는 평생교육시대다. 한번 받은 학위나 자격증으로 일생을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예전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그것으로 평생 먹고 살았으나 앞으로는 지식의 발달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받아야 한다. 직장을 구했다하더라도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하지 않고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 이러한 평생교육시대에 재교육 및 평생교육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주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이 바로 사이버대학이다.

사이버대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기 때문에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시공 제약 초월 · 현장 전문가 초빙 유리

사이버대학은 인터넷의 특성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대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강의를 들어야 하는 기존대학과는 달리 시간과 장소의 활용을 학생위주로 할 수 있다. 특히 교수의 입장에서도 꼭 대학에 전임으로 부임해야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의 전문가들을 대학교수로 초빙하기가 쉬워진다. 기존대학의 경우는 강의를 하기 위해 그 대학까지 정해진 시간에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유능한 현장 전문가는 교수로 초빙돼 강의를 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점에서 사이버대학은 본질적으로 현장중심의 전문가를 통한 현장중심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사이버대학의 발달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초고속인터넷망과 인터넷 이용률의 환경을 갖춘 곳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가장 저렴하고 편리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온라인학습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호주 등에서 사이버대학이 발달하고 있다. 미국은 MIT, 스탠포드 등 초일류 대학들이 사이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MIT는 2007년까지 대학의 전 교과과정을 인터넷상에 오픈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미국에 가질 않고도 미국최고의 명문이라는 MIT대학의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 들을 수 있게 된다. 최근 들어 사이버대학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나라로 중국을 빼놓을 수 없다. 중국은 앞으로 자신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사이버대학을 꼽고 사이버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고 있다.

이 결과 현재 중국전역에서 64개의 대학들이 사이버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아시아 교육시장을 두고 중국의 사이버대학과 한국의 사이버대학이 맞붙는 시기가 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북경대학의 온라인 과정이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다.

재교육 문제를 언급하면, 한국은 높은 열의에 비해 실제 재교육률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주5일제 근무로 인해 직장인들이 자기개발에 투자하는 시간을 늘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재교육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재교육이 매우 활성화돼 있는 상태다.

OECD 재교육 비율을 보면 프랑스(40%), 독일(33%), 미국(34%)인데 반해 한국은 5.4%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의 재교육이 현실적으로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버대학은 재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의 수단으로서 국민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효율적인 도구임과 동시에 국민 평생교육과 피폐해진 공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학습혁명 진전 ... 교육기관 무한경쟁 체제

인터넷은 시간도 지역장벽도 없는 완전경쟁 체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대학 역시 해외의 명문대학들과 완전경쟁하고 있다. 능력이 못 미치는 학교는 문을 닫는 것이 순리다. 기존의 오프라인대학처럼 학생을 단지 가르치는 대상으로만 보고 봉건적으로 대학을 운영해 나간다면 문 닫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사이버대학교는 기존 오프라인대학과 달리 기업운영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문화상품이란 용어가 있듯이 앞으로도 사이버대학들은 높은 질을 가진 '교육상품'으로 개발해 나가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사이버대학은 인터넷의 특성상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대학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대학과 비교해 사이버대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것이다. 학생을 고객으로 여기는 셈이다.

학생을 고객으로 생각한다는 점에 대해 교육학자들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사이버대학들의 설립정신은 학생을 고객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대학들의 모든 운영은 이같은 설립정신에 입각해 이뤄지고 있다. 교수들의 강의를 엄격히 평가해 학생들의 평가가 낮을 경우 강의를 폐강하고 학생들의 불만사항을 실시간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학생들의 취업문제에 대해서도 특별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재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장인의 이직과 재취업에 요구를 해결하고 미취업 상태의 재학생 취업지원을 위해 커리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커리어센터는 예비구직자에게는 취업교육과 취업지원을,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는 경력관리와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학생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설립정신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서울디지털대학교의 경우 8,000여명의 재학생과 연합대생 1만6,000여명 등 모두 2만4,000여명의 학생이 수강하고 있다.

학교운영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재등록률은 85%를 웃돌고 출석률도 90% 이상으로 서울의 기존 명문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해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약 8,40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인구가 2025년에는 1억6,000만명으로 2배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메릴린치가 예측한 바 있다. 그리고 새롭게 늘어나는 고등교육 수요의 절반 가량인 4,000만명은 인터넷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기존의 학교교육으로는 신규수요를 감당해낼 수 없다. 오프라인 특성상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이 새로운 교육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교육에서 국가독점이 사라진다는 말이다. 향후 5년 내에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등록하는 '글로벌 가상대학'이 생겨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학습혁명의 진전과 함께 주목되는 21세기 성장산업이 교육산업이다. 